

초등학생의 가치 논제 글쓰기 양상 분석

— 필수 쟁점을 중심으로

김윤지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과정

- I. 서론
- II. 가치 논제의 필수 쟁점
- III. 연구 방법
- IV. 초등학생의 가치 논제 글쓰기 양상 분석 및 논의
- V. 교육적 시사점 및 결론

I. 서론

그간의 논증 교육 연구 및 교과서¹⁾에서는 가치 논제보다는 정책 논제가 관심의 우위를 점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정책 논제가 가치 판단 문제를 포함한다는 이유로 상위의 논제라고 여기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서로 다른 가치가 대립하고 갈등하는 상황에서 논쟁하는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책 논제에서의 논증은 정책이 지향하는 목표나 가치와 같은 근본적인 쟁점은 소거된 채 효과성, 실현 가능성과 같은 부분적인 쟁점에만 몰두하는 논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가치 논제에 본격적인 초점을 둔 논증과 소통의 훈련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가치 논제 교육에 대한 연구는 수적으로 매우 희소하다. 이민형(2015, 2016), 장지혜(2019, 2020)²⁾의 연구가 있으나 이들은 각각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

-
- 1) 2009·2015 개정 국어 교과서에서의 토론 논제를 분석한 서영진(2023년)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정책 논제의 활용 비중이 가치 논제보다 훨씬 높음을 보여주었다.
 - 2) 장지혜(2019, 2020)에서는 논제에 대한 입장을 정하여 논증하기보다는 ‘행복’, ‘정의’와 같은 가치 개념에 대한 해석을 탐구적으로 논증하는 글쓰기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본고

상으로 하였다든 점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탐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학습자의 논증 양상을 분석한 연구들에서는 논증 구조와 논증 도식을 분석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대표적으로 민병곤, 2000, 2004; 서영진, 2012, 2023 7; 장성민, 2015; 장지혜, 2019), 논증 무브를 분석한 경우(민병곤, 2002; 채윤미, 2015; 지서영, 2024 등)도 살펴볼 수 있다. 논증 도식은 논거와 주장 간의 관계를 표상하는 방식(Van Eemeren & Grootendorst, 1992: 96)이며, 무브(move)는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하는 수사적 단위(Swales, 2004: 228-229)라는 점에서 이들은 논제의 유형에 관계없이 논증의 조직 방식이나 전개 양상을 두루 분석할 수 있는 틀이 된다. 그러나 특정 논제 유형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내용 요소를 분석해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가치 논제의 특수성에 초점을 두기 위해 ‘필수 쟁점’을 분석 틀로 삼고자 한다. 교육적 맥락에서 가치 논제와 정책 논제를 분별하는 핵심 차이가 필수 쟁점에 있기 때문이다. 필수 쟁점은 논제를 다룰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적 요소를 의미한다. 비록 초등학교 수준에서 필수 쟁점을 명시적인 교육 내용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논제에 대한 입장을 정하고 예상 반론을 고려하며 자신의 생각을 논증하는 글을 쓰는 과정은 곧 필수 쟁점을 다루는 과정과 닮았다. 따라서 필수 쟁점은 학교급에 관계없이 학습자가 산출한 가치 논제 글쓰기의 장르적 특징이 얼마나 잘 구현되었는지 분석하는 적합한 틀이 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학습자들이 산출한 가치 논제 글쓰기³⁾에서 필수 쟁점

의 초점과는 차이가 있다.

- 3) 본고에서 토론이 아닌 글쓰기에 연구의 초점을 둔 이유는 글쓰기는 토론에서의 입론의 양식이 되므로, 글쓰기 분석은 곧 가치 논제 토론 분석의 선행 단계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정책 논제 토론에서와 달리 가치 논제 토론에서는 찬성과 반대 측 모두 동등한 입증 책임을 가지며 추정은 할당되지 않으므로(이민형, 2015: 127), 찬반 각자가 사전에 구축한 입론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은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서로 다른 두 성격의 논제를 바탕으로 쓴 글에 나타난 필수 쟁점 구현 양상의 차이를 다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초등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가치 논제 논증 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의 가치 논제 글쓰기에서 필수 쟁점은 어떤 양상으로 구현되는가?

둘째, 가치 논제의 성격에 따라 이러한 양상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II. 가치 논제의 필수 쟁점

1. 가치 논제의 개념과 범주

가치는 옳고 그름, 좋고 나쁨에 대한 우리의 믿음으로, 가치 논제는 어떤 것이 좋고 나쁨에 대한 평가적 주장(evaluative claim)이 진술된 논제로 정의된다(Freeley & Steinberg, 2014/2018: 251). 가치 논제를 이루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평가 대상(object(s) of evaluation)과 평가 용어(evaluation term)이다(이민형, 2015, 2016).

가치 논제의 범주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제시된다.⁴⁾ 먼저, 평가 대상의 수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이선영(2011: 91)은 Zarefsky(1980)의 논의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두 가치의 비교와 대조를 통해 우열성을 판단하는 ‘합성 평가형’과 단일 대상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단일 평가형’으로 나누었다. 다음으로, 가치 논제에 내포된 평가 대상의 성격에 따라 나눌 수 있

4) 국내의 선행 연구로부터 가치 논제의 범주화 방식을 종합한 이민형(2015)의 논의를 참조하였다.

다. Williams & Colomb(2007: 10)은 논증의 대상이 되는 문제를 이분화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논제의 평가 대상이 어떤 개념이나 현상이면 개념 문제, 실용적 행위나 정책이면 실용 문제(유사 정책 문제)로 구분된다.

마지막으로, 평가 용어의 보편성 정도(이민형, 2015)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다. 이 기준은 본고에서 초점을 둔 가치 논제의 필수 쟁점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다. ‘좋다’, ‘바람직하다’와 같은 평가 용어는 개념역이 넓고 보편적이라는 점에서 해당 용어를 내포한 논제는 ‘보편적 가치 판단형’이 된다. 그에 비해 ‘도덕적이다’, ‘교육적이다’는 보다 구체적인 의미역을 가진다는 점에서 ‘구체적 가치 판단형’으로 분류한다.⁵⁾

2. 가치 논제에서의 필수 쟁점

쟁점이란, ‘논제에 내재되어 있는 중요한 주장’이자 ‘논제에 종속된 의견 충돌의 지점’이며, 필수 쟁점은 특정 유형의 논제를 다루는 대부분의 토론에 존재하는 공통된 쟁점을 의미한다(Freeley & Steinberg, 2014/2018: 294-295). 이는 다시 말해, 특정 유형의 논제를 다룰 때는 필수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쟁점들이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정책 논제의 경우 현 상태를 유지할 경우(status quo)에 생기는 피해의 정도에 대해 논하는 ‘피해성’, 피해의 원인이 현 상태의 구조에 내재함을 입증하는 ‘내재성’, 제안하는 해결 방안이 실현 가능하며, 그 시행 결과 발생하는 이익이 불이익보다 크다는 것을 증명하는 ‘해결성’이 필수 쟁점이 된다(Freeley & Steinberg, 2014/2018: 301-303).

5) 다만, 평가 용어의 개념 범위는 상황 맥락에 따라,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넓거나 좁게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탈맥락화된 상태에서 평가 용어만 보고 구체성/추상성의 정도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선하다’라는 평가 용어가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비교적 구체적인 평가 용어가 될 수도 있지만, 고등학생 이상의 학습자들이 철학적·윤리적 토대로 접근하는 경우 그 개념역을 훨씬 더 넓게 상정할 수도 있다.

필수 쟁점은 본디 토론에서 사용하는 용어지만, 논증적 글쓰기에서도 필수 쟁점들이 구현될 필요가 있다. 어떤 논제에 대해서 논증한다는 것 자체는 독백적 행위가 아니며, 나와 다른 입장을 지닌 타자의 반론을 고려하며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1) 가치 논제에서의 필수 쟁점에 대한 선행 논의

가치 논제에서의 필수 쟁점을 논의한 초기의 연구이자 가장 광범위하게 통용되고 있는 연구는 Matlon(1978)으로, 그는 가치 논제에서의 필수 쟁점을 정의적 쟁점(definitive issues)과 지시적 쟁점(designative issues)으로 구분하였다. 정의적 쟁점은 ‘핵심 용어의 정의는 무엇인가’,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내포하고, 지시적 쟁점은 ‘사실들이 해당 정의에 부합하는가’, ‘무엇이 이 가치의 효용인가’의 질문을 내포한다. 이러한 범박한 분류 방식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들에서는 이를 세분화하고 구체화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Trapp & Driscoll(2005)은 가치 논제의 쟁점을 ‘기술하기’, ‘적용하기’, ‘평가하기’로 제시하였는데, 이선영(2011)에서는 ‘기술하기’ 단계를 세분화하여 ‘중요 용어 개념 정의하기’, ‘가치 정하기’로 나누고, ‘적용하기’ 단계를 ‘상황에 적용하여 결과 추론하기’로 구체화하였다. 이민형(2015; 2016)은 가치 논제의 쟁점을 ‘가치(value)’, ‘가치 판단 기준(criteria)’, ‘적용(application)’으로 나눈 Inch, Warnick, & Endres (2006)의 논의를 받아들이고, 대부분의 연구에서 가치 논제의 필수 쟁점으로 간주하고 있는 ‘핵심 개념 정의’를 범주로 포섭하였다. 즉, 해당 연구에서는 가치 논제의 필수 쟁점으로 ‘핵심 개념 정의’, ‘가치 전제(value premise)⁶⁾ 생성’, ‘가치 판단 기준(value

6) warrant는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보증으로 주장과 근거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 인 반면, premise는 논증 주체가 설정한 상위의 가치 원리나 기준으로 그 자체가 논쟁의 대상이 된다(장지혜, 2020: 56-57).

criteria) 설정’, ‘가치 적용(value application)’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선행 논의 흐름은 아래의 <표 1>에 정리하였다.

<표 1> 가치 논제의 필수 쟁점에 대한 선행 논의

Matton (1978)	Trapp & Driscoll (2005)	이선영 (2011)	Inch et al. (2006)	이민형 (2016)
정의적 쟁점	기술하기	중요 용어 개념 정의하기	가치 (가치 전제)	핵심 개념 정의
		가치 기준 정하기		가치 전제 생성
지시적 쟁점	적용하기	상황에 적용하여 결과 추론하기	적용	가치 적용
	평가하기	평가하기		

본고는 국내의 이선영(2011)과 이민형(2016)이 제시한 필수 쟁점의 기본적인 틀을 이어받되, 용어 면에서는 이민형(2016)에서 제시한 범주명을 따른다. 해당 연구는 본고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치 논제에 본격적인 초점을 둔 연구이므로, 향후 가치 논제 논증 교육의 계열성과 계속성을 밝히는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용어 및 분석 틀을 대부분 공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⁷⁾

다만, 연구 참여 학습자 집단과 제시한 논제가 상이하므로, 두 연구의 분석 결과 간의 직접적인 비교는 시도하지 않는다. 중학교 3학년과 초등학교 6학년은 학습 발달상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민형(2016)에서 설정한 필수 쟁점 분석 기준을 초등학교 수준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어지는 내용

7) 이민형(2016)의 논의는 토론 상황을 전제로 가치 논제의 필수 쟁점을 제시하였고, 본고는 글쓰기 상황을 다룬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러나 가치 논제에서 어떤 내용 요소를 중심으로 입장을 정당화하는가는 토론과 글쓰기 모두와 관련된 문제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해당 연구에서 제시한 필수 쟁점 틀이 가치 논제 글쓰기의 양상을 분석하는 데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보았다.

에서는 가치 논제의 필수 쟁점들을 항목별로 개관하고, 그것을 본고에서 어떻게 재조정하였는지 서술하고자 한다.

2) 가치 논제에서의 필수 쟁점 개관

① 핵심 개념 정의하기

핵심 개념을 정의하는 일은 논제의 유형에 관계없이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가치 논제에서 규명되어야 할 핵심 개념은 가치 논제의 구성 요소인 평가 대상과 평가 용어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평가 용어는 가치 전제와 가치 기준에서 정의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평가 대상이 핵심 개념 정의 단계에서 규정되는 경향이 있다(Hill & Leeman, 1997; 이민형, 2015: 132 재인용).

② 가치 전제 생성하기⁸⁾

가치 전제는 평가 용어를 판단하는 상위의 핵심 가치이자 주체가 평가 용어로부터 설정한 논증 영역으로, 논증을 통해 입증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가 된다. 전술하였듯 가치 논제를 구분하는 기준 중 하나로 평가 용어의 보편성 정도가 있다. 평가 용어의 개념 범위가 넓고 보편적인 경우, 평가 용어에서 핵심 가치를 추출해 구체적인 논증 영역을 구성(이민형, 2015: 140)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여행은 좋다'라는 논제에서 '좋다'는 보편적이고 광범위한 평가 용어로, 그 개념역 안에서 논증 주체가 옹호하고자 하는 가치를 추출하여 '삶의 질을 높인다'와 같은 구체적인 논증 영역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도출된 가치 전제는 가치 기준과 가치 적용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받게 된다(이민형, 2015: 133).

8) 후술하겠지만, 가치 전제 생성은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독립적인 분석 범주로 설정하지 않았다.

한편, 가치 논제의 평가 용어가 비교적 구체적인 경우(예를 들어, ‘용기 있다’, ‘헌신적이다’), 평가 용어가 이미 구체적 논증 영역을 지시하고 있으므로 가치 전제를 별도로 생성할 필요성은 낮아진다. 이 경우 평가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곧바로 가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③ 가치 기준 설정하기

가치 전제가 설정되고 나면, 혹은 가치 논제의 평가 용어가 구체적인 경우, 가치 전제나 가치 논제를 판단하고 검증할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앞서 말한 예시 논제(‘여행은 좋다’)에서 도출된 ‘여행은 삶의 질을 높인다’라는 가치 전제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회복을 돕는가?’, ‘아는 것이 많아지는가?’와 같은 구체적인 수준에서의 기준들이 필요한 것이다. 가치 기준은 가치 전제 혹은 평가 용어를 검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치 전제보다 더 구체적이고 관찰 가능한 수준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④ 가치 적용하기

가치 논제에서 가치 전제를 도출하였고, 그 전제를 판단하기 위한 갖대인 가치 기준을 설정하였다면, 평가 대상이 가치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가치 적용이란 평가 대상을 가치 기준에 빗대어 평가하는 작업이다. 이 단계에서는 실제 사례나 예시 사례⁹⁾를 통해 평가 대상이 가치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논제에 따라서는 가치 기준보다는 가치 적용이 강조되는 경우가 있다. 가치 전제나 가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애매하거나 세우더라도 각기 다른 기준들이 우후죽순처럼 주장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사례들을 제시하며 귀

9) 가치 적용에서 활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논증 도식은 예시 도식이지만, 평가 대상이 가치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는 ‘인과’와 같은 다른 도식들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가치 적용을 예시 도식에만 한정할 수는 없다.

납적으로 논제를 입증하는 과정이 결론에 도달하는 데 더 적절한 방식일 수 있다.

요컨대 가치 논제에 대한 논증을 펼치는 과정은 먼저 가치 전제를 도출하고, 그 전제를 검증할 가치 기준을 설정한 후, 가치 적용을 통해 전제를 입증하는 방식을 거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찬성 입장의 경우 이러한 과정을 그대로 거치면 되지만, 반대 측의 경우 좀 더 복잡하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온라인 게임은 유익하다’는 논제에서, 반대 측은 ‘해롭다’와 ‘(해롭지는 않지만) 유익하지도 않다’는 두 가지 방향 중에 선택을 하게 된다. 전자의 경우 ‘해롭다’는 평가 용어에 대한 가치 전제나 기준을 세우면 되지만, 후자의 경우 ‘해롭지도 유익하지도 않음’에 대한 가치 기준은 세우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유익함’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을 제시한 후, 온라인 게임이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들을 들어 ‘가치 적용이 되지 않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3) 본 연구에 적용하는 가치 논제의 필수 쟁점

필수 쟁점들은 추상성의 정도로 보면, 가치 전제가 가장 추상적이고, 가치 기준, 가치 적용 순으로 구체성이 커진다. 이 중에서 가치 전제 생성은 평가 용어에서 핵심 가치와 논증 영역을 추출하는 과정으로, 다른 쟁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추상화를 요구한다. 또한, 가치 전제를 글에 명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가치 전제와 가치 기준의 차이와 위계적 관계를 이해하고 두 쟁점을 구분하여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¹⁰⁾ 이러한 점에서 가치 전제 생성은 초등학생에게 부담이 큰 과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초등학생의 가치 논제 글쓰기에서는 가치 전제를 독립적인 분석 범주로 설

10) 가치 전제는 가치 기준을 통해 검증될 때 실제 논증에서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 전제를 생성하는 것은 가치 전제와 가치 기준의 위계적 관계에 대한 이해를 전제한다.

정하기보다, 구체적인 성격을 가지는 ‘가치 기준’과 ‘가치 적용’ 단계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핵심 개념 정의 단계를 ‘논제 해석’으로 확장하여 설정하였다. 논제를 해석하는 단계에서 핵심 개념에 대한 정의도 이루어지므로, 핵심 개념 정의만 국소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논제 해석 자체를 분석하고자 함이다. 그 이유는 핵심 개념을 정의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쟁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인데, 논증 전문가가 아닌 미숙한 학습자들 사이에서 쟁점이 불분명해지는 원인은 평가 대상과 평가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더 넓은 차원, 즉 논제 해석에서 오류나 불일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¹¹⁾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주어진 가치 논제의 요소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논제의 의미를 충실하게 이해하는지, 논리 구조나 의미를 재구성하거나 변형하는 양상은 어떠한지 분석하고자 한다.

정리하면, 본고는 초등학생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수준에 맞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필수 쟁점을 재조정하였다. 첫째, 가치 전제는 초등학생 수준에서 가치 기준과 명시적으로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분석 범주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초등학생 수준에서는 핵심 개념 정의의 부재뿐만 아니라 논제 자체의 해석에 오류가 있어서 필수 쟁점 구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논제 해석’으로 범주를 넓혀 설정하였다. 이에, 최종적으로 본고에서는 가치 논제의 필수 쟁점들을 ‘논제 해석’, ‘가치 기준 설정’, ‘가치 적용’ 세 가지로 상정하였다.

가치 논제 글쓰기에서 필수 쟁점이 모두 정석적으로 반영된 글쓰기를 전제하는 것은 실제 글쓰기의 복잡한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비추어

11) 이민형(2016)에서도 이론적으로는 가치 논제의 필수 쟁점으로 핵심 개념 정의를 제시했지만 실제 학습자의 토론 양상을 분석할 때 핵심 개념 정의 자체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논제 해석의 오류’ 측면으로 넓혀서 살펴본 것도 이러한 까닭으로 보인다.

질 수 있다. 그러나, 가치 논제 논증 교육의 체계화를 위해서는 선결적인 틀에 입각하여 학습자의 글쓰기를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필수 쟁점의 구현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현상적으로 기술하고 향후 교육적 개입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밝힌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논제 선정

본 연구는 서울 소재 S 초등학교의 6학년 학습자 20명(1학급)의 글쓰기를 대상으로 한 사례 연구이다. 해당 학급의 학습자들은 학습 태도나 학업 성취도 면에서 평균 수준에 분포해 있다. 자료 수집 시기는 2025년 12월 첫째 주로, 학습자들이 6학년 국어 교과서의 주장하는 글쓰기 단원¹²⁾을 모두 마친 상태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는 가치 논제에서 보이는 오류 양상이 기본적인 논증 수행 학습 부족에서 기인한 것인지 가치 논제 고유의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인지 구분하기 위함이다.

학습자들이 가치 논제를 접하고 필수 쟁점을 구현하는 자연스러운 양상을 살피기 위해, 교사나 연구자의 개입을 최소화하였다. 따라서 사전에 논제에 관한 지도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고, 논제 선정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별도의 배경지식 제공 없이도 논증을 펼칠 수 있는 논제인지를 우선적으로 고

12) 자료 수집이 이루어진 2025년에 5-6학년군은 2015 개정 국어 교과서를 사용하였다. 2015 개정 6학년 교과서에서는 1학기 4단원(주장과 근거를 판단해요), 2학기 3단원(타당한 근거로 글을 써요)과 7단원(글 고쳐 쓰기)에서 논증적 글쓰기를 학습한다.

려하였다. 또한, 찬반 입장을 모두 형성할 수 있으면서도 학생들이 충분히 흥미를 가지고 논증 활동에 몰입할 만한 친숙한 맥락의 논제를 선정하였다.

본고에서는 두 가지의 논제,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와 ‘온라인 게임은 유익하다’를 제시하였다. 두 논제는 모두 가치 논제지만,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닌다. 해당 논제들을 선정한 근거는 앞서 서술한 가치 논제의 범주화 방식에 입각한다. 첫째, 두 논제 모두 ‘단일 평가형’ 논제로 설정하였다. 합성 평가형 논제는 평가 대상이 2개로 주어지는 반면 단일 평가형은 하나이기 때문에 가치 기준 설정 및 가치 적용 양상을 더욱 명료하게 포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논제 I은 ‘돈이 많은 것’이라는 개념·현상적 평가 대상을 포함하였고, 논제 II는 ‘온라인 게임’이라는 구체적 행위로서의 평가 대상을 포함하였다. 이는 평가 대상의 성격에 따라 논증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가치 논제의 여러 양상을 두루 살피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좋다’, ‘바람직하다’와 같이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평가 용어의 경우 가치 전제를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므로, 그보다는 의미역이 더 구체적인 ‘행복하다’, ‘유익하다’라는 평가 용어를 채택하였다.

20명의 학습자들은 논제를 제공받은 후 자유롭게 입장을 선택하였으며, 논제 하나에 한 차시(40분) 동안, 총 2차시에 걸쳐 연속적으로 두 편의 글을 작성하였다. 개별 자료는 [논제 번호-학습자 연번]의 방식으로 정리하였다. 예를 들어, 논제 I의 일련번호 2번 학습자의 자료의 경우, [I-2]와 같이 표기하였다.

2. 분석 방법

본고는 질적 내용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자료 분석을 수행하였다. 질적 내용 분석이란 ‘주어진 자료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분류 방법인 코딩 과정을 통해 내용의 패턴과 주제를 밝히는 연구 방법(최성호·정정훈·정상원, 2016: 132)’이다. 1차 코딩에서는 학습자의 글쓰기 자료

40편을 앞서 설정한 세 가지 필수 쟁점 측면에서 살펴며 특징적인 양상에 의미를 붙이는 개방 코딩을 수행하였다. 2차 코딩에서는 비슷한 코드끼리 묶는 축 코딩을 수행하였는데, 이렇게 도출된 범주는 필수 쟁점별로 드러난 글쓰기 양상 범주가 된다. 마지막으로, 도출한 범주들을 바탕으로 전체 자료를 재검토하여 범주당 몇 건이 나타났는지 그 빈도¹³⁾를 파악하였다.

가치 논제 논증 글쓰기는 가치관이 개입되는 장르라는 점에서 분석자에 따라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어교육 전문가 2인¹⁴⁾에게 분석 결과에 대한 검토 과정을 거쳤다. 검토자들에게는 원자료와 연구자가 도출한 코드 및 범주를 함께 제공하고, 각 범주의 타당성, 범주 간 구분의 적절성, 해석의 과잉 또는 누락 여부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범주 및 코딩 결과를 일부 수정하고 해석을 보완하였다.

IV. 초등학생의 가치 논제 글쓰기 양상 분석 및 논의

1. 논제 해석 양상

1) 핵심 개념(평가 대상) 정의의 생략

학습자들의 글쓰기를 분석한 결과, 핵심 개념(평가 대상)을 유의미하게 정의한 경우가 발견되지 않았다. 논제 1의 경우, ‘돈이 많다’는 것이 무엇을

13) 분석 과정의 일부를 수치화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해석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보조적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혜연, 2014: 385). 글쓰기에서 드러나는 특징적 양상은 논제의 성격과 관련되므로, 하나의 양상이 두 가치 논제에서 얼마나 다른 빈도로 나타나는지 비교하였다.

14) 두 검토자 모두 6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현직 초등교사이자, 논증 교육 관련 석사 학위 소지자로, 현재 국어교육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다.

의미하는가가 사람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범위를 정하거나 나름의 정의를 내리려는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논제 II의 경우에는 평가 대상을 정의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진 경우가 1건 있었으나 ‘온라인 게임은 온라인에서 하는 게임’이라는 동어 반복을 하여 유의미한 정의를 내렸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학습자들에게는 ‘돈이 많음’과 ‘온라인 게임’이라는 평가 대상이 친숙하고 평이한 어휘라는 점에서 따로 정의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친숙한 평가 대상이라도 그것을 정의하는 것이 논증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평가 대상과 평가 용어의 변경

주어진 논제에서 평가 대상과 평가 용어를 다른 개념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논제 II(온라인 게임은 유익하다)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반면, 논제 I(돈이 많으면 행복하다)에서 5건(25%) 발견되었다. 다음 경우를 살펴보자.

[I-13]

…돈을 어디에 쓰고 하는 게 다 생각이 필요하다. 만약 어떤 물건을 산다고 쳐 보면 emart에서 어떤 물건이 눈앞에 바로 나타나지도 않고 바로 생기지도 않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바로 원하는 게 있으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둘째, 돈이 있다고 해도 힘든 일을 하거나 몸을 아프게 만들면서 돈을 벌면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략) 게다가 돈을 좋아하면 가족 생각도 안 나기 때문이다.

[I-13]의 학습자는 논제 I에 대한 반대 입장을 취하는데, 글 속에는 ‘돈이 많으면’이 아니라 다른 여러 평가 대상들이 등장하는데, ‘돈을 쓰면’, ‘돈을 벌면’, ‘돈을 좋아하면’ 행복하지 않을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이렇게 평가

대상이 바뀌면 주어진 논제가 아닌 다른 논제에 대한 논증을 펼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다음은 평가 용어를 변경하는 경우를 보여준다. 논제 I에 반대 입장을 취하는 [I-11] 학습자가 논거로 제시한 단락의 일부이다.

[I-11]

마지막으로, 돈을 마구 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당장 나에게 100만원이 생겼다고 하자. 그럼 나는 지금까지 돈이 없어서 타고 싶었거나 못했던 일들을 할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넓고 일은 많다. 내가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에 돈을 모두 쓰면 금방 돈이 사라질 것이다.

[I-11] 학습자는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라는 원래의 논제 대신, ‘돈이 많은 상태는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논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것처럼 글을 전개하였다. 평가 대상은 ‘돈이 많은 상태’로 동일하지만, 평가 용어가 ‘행복하다’에서 ‘지속 가능하다’로 변경된 것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는 명제는 인정하면서 ‘돈이 많아서 행복한 상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라는 주장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원래의 논제에서 반대 측과 찬성 측 어느 쪽도 온전히 논증하지 못하고 제2의 논제로 이동해 버린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평가 대상과 평가 용어가 글쓰기 도중에 바뀌어 버리는 것은 Bereiter(1980)가 어린 필자에게 종종 나타나는 현상으로 제시한 연상적 쓰기(associative writing)의 양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이 논제 I에서만 나타난 것은 논제 I에서 연상적 의미 구성 사고를 상대적으로 쉽게 촉발할 수 있는 성격을 지닌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논제 I의 평가 대상인 ‘돈이 많음’은 원인과 결과를 연상하기가 쉬운 개념이다. 돈이 많다는 것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이고,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을 것이며, 돈이 많으면 돈을 많이 쓰게 될 것이라는 등 원인

과 결과를 추정하는 사고가 발동되기 쉽다. 물론, 학습자들이 의식의 흐름대로 연상적 사고에만 의존하여 논제 변경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돈이 많음’이 해당 개념들을 필수적으로 전제하거나 수반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 파생 개념들을 논증에 활용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후 인과적 파생 개념은 어디까지나 유관 개념일 뿐 평가 대상을 대체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은 자신이 연상한 개념들이 평가 용어에 부합함(혹은 부합하지 않음)을 입증하면, 본래의 평가 대상 역시 자동적으로 평가 용어에 부합함(혹은 부합하지 않음)이 입증된다는 것으로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돈이 많은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원래의 논제인 ‘행복하다’라는 평가 용어가 변경된 논증을 펼친 학습자의 경우에도 돈이 많으면 ‘돈을 쓰게 되고, 그 결과 돈이 없어지게 되고’, ‘그 결과’ 행복하지 않게 되리라는 연상적 사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평가 대상이 수반하는 결과들을 연상하는 사고가 통시적 사고로 발현된 경우이다.

정책 논제에서는 이러한 통시적 관점에서 논증하는 것이 요구될 때가 많다. 정책 논제에서는 특정 행위를 채택할 것인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행위 이후 발생할 효과나 부작용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치 논제에서는 논증의 초점이 시간적 변화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평가 대상과 평가 용어 간의 관계를 평가하는 데 있으므로, 통시적 논의로 논의가 흘러갈 경우 논점이 흐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3) 논제 구성 요소를 부정형으로 재구성

논제는 평가 대상과 평가 용어의 결합을 통한 명제로 구성된다. 그러나 학습자들의 글쓰기에서는 주어진 논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보다, 평가 대상을 부정하거나 평가 대상과 평가 용어를 모두 부정한 형태로 논제를 재구성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경우, 표면적으로는 원래 논제에 대한 찬반 논증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주어진 논제의 논리 구조가 변경되어 논

증의 초점이 달라지게 된다. 이 경우도 앞선 양상과 마찬가지로 논제 I에서만 5건(25%) 나타났다. 아래는 논제 I에 대한 찬성 입장을 지닌 학습자들의 글쓰기의 일부분이다.

[I-5]

왜냐하면 첫째, 돈이 없으면 생계를 이어 나가기 힘듭니다. 돈이 없으면 의식주가 힘들어지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노숙을 해야 하는데 노숙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둘째, 지금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공부를 하고 일을 합니다. 저는 사람이 사는 이유는 행복해지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도 행복해질 수 있다면 사람들이 공부하고 직장을 다니는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I-17]

일단 돈이 없는 사람도 행복할 수 있다는 의견도(→ 돈이 없는 사람도 행복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도) 최소한 의식주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식주를 보장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I-5] 학습자는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논증하는 대신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불행하다)’는 주장을 펼친다. 원래의 논제에서 평가 대상과 평가 용어 각각을 정반대로 부정한 후 이를 입증하면 된다고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논제에 찬성 입장을 택한 [I-17] 학습자는 자신의 입장과 대립하는 주장을 예상하여 언급하고, 그에 대한 반박을 하며 논증을 펼치고자 하였다. 그러나 논제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을 옹호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라 예상하고 그것에 대한 반박을 하였다. 이는 평가 용어 대신 평가 대상을 부정하여도 논제에 대한 반대 입장이 될 수 있다고 여기는 학습자의 오해를 드러낸다.

한편, 두 논제에서의 빈도 차이의 원인은 논제의 성격에서 추론해 볼 수 있다. 논제 I에서만 이러한 양상이 나타난 것은 논제 I이 논제 II에 비해 대비적 속성이 드러나는 평가 대상과 평가 용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온라인 게임’이나 ‘유익함’에 비해 ‘(돈이) 많음’과 ‘행복’은 ‘적음’, ‘불행’이라는 대비되는 어휘가 비교적 뚜렷하게 존재한다. 이러한 대비적 속성을 지닌 어휘는 학생들이 더 쉽게 반대의 개념(부정형)으로 치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양상이 더 자주 일어날 수 있다. 반면, 논제 II는 ‘온라인 게임을 하지 않음’이나 ‘유익하지 않음’과 같은 부정형 표현은 덜 자연스럽고, 특히 ‘온라인 게임을 하지 않는 것은 유익하지 않다’의 경우 의미가 어색해 지므로 이러한 방식의 재구성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2. 가치 기준 설정 양상

1) 가치 기준의 생략

일부 학습자의 경우 가치 기준이 소거된 논거를 들거나 아예 가치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는 두 논제에서 모두 5건(25%)씩 발견되었다. 가치 기준의 부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하위 양상으로 나타났다.

먼저, 가치 적용으로 가치 기준을 대체하는 양상이다. 가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비슷한 성격의 가치 적용을 나열함으로써 가치 기준을 독자가 추론해야만 하는 글을 쓰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다음은 논제 I에 찬성하는 학습자, 논제 II에 반대하는 학습자의 글이다.

[I-19]

돈이 많으면 왜 행복하냐면 첫째 돈이 있으면 먹고 싶은 걸 마음껏 사 먹을 수 있다. 둘째, 가고 싶은 데를 가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 왜냐하면 PC방, 키즈 카페 이런 데를 가면 그냥 신나서 스트레스가 풀리기 때문이다.

[III-8]

왜냐하면 첫째 온라인 게임을 하면 시력이 낮아진다. 온라인 게임은 스마트폰, 패드, 컴퓨터 등으로 하는데 그것들이 다 눈을 좋지 않게 만든다.

둘째, 허리가 나빠진다. 온라인 게임과 허리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몇몇 의사들은 게임을 하다 나도 모르게 자세가 나빠져서 허리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셋째, 거북목이 온다. 이것도 똑같이 상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도 모르게 얼굴이 화면 쪽으로 가서 목이 거북이처럼 될 수 있습니다.

[I-19]는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가’를 행복에 대한 가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글에서는 이러한 가치 기준을 필자 내부에서만 상정할 뿐 독자들과 소통하지 않으며, 개별적인 예시들을 나열하여 가치 적용만 하는 양상을 보인다. 마찬가지로, [III-8]도 ‘유익하지 않음’의 기준으로 ‘건강에 해로운가’라는 가치 기준을 설정하였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지만, 개별적인 가치 적용을 나열할 뿐 이를 상위 진술로 묶어서 가치 기준으로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은 가치 판단 기준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예시 도식만을 활용한 단순 나열식 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증적 글쓰기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덧붙여, 이러한 방식으로 토론 입론서를 작성한다면, 실제 토론에서는 개별적이고 국소적인 가치 적용에 대해서만 논쟁하다가 정작 핵심적인 가치 기준에 대한 논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¹⁵⁾

한편, 문장 표지를 통해 가치 기준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듯하나 사실상 가치 기준이 부재한 양상도 있다. 순환 논증을 펼치며 가치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이다.

15) 이민형(2016)에서도 중학생들의 토론 과정에서 ‘사소한 사례에 대한 집중 공방’ 양상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III-6]

나는 온라인 게임이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첫째, 온라인 게임에서 배울 수 있는 것보다 잃을 수 있는 게 더 많다. 예를 들어 온라인 게임에서 온라인 친구를 사귄 수 있다는 장점에는 온라인 게임에서 얻은 친구 때문에 현실의 친구와 멀어지는 등 한 가지 장점에 여러 가지 단점이 생긴다.

III-6]에서 학습자는 ‘온라인 게임이 유익하지 않다’를 뒷받침하기 위해 ‘배우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곧 ‘유익하지 않음’을 평가하기 위해 학습자가 내세운 가치 기준이다. 그러나, ‘잃는 것이 더 많음’은 ‘유익하지 않음’과 의미상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가치 기준이 부재한 것과 마찬가지다. 근거 안에 이미 결론이 내포되어 있는 순환 논증의 오류를 범한 셈이다.

이렇듯 가치 기준이 소거된 글을 쓰게 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추론할 수 있다. 첫째, 2015 교육과정에서 이유와 근거를 구분하여 가르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급에서도 이유와 근거의 개념과 관계를 학습한다는 진술이 있는 반면,¹⁶⁾ 2015 교육과정에서는 주장과 근거에 관한 내용 요소만을 다루고 있다. 가치 논제에서 ‘가치 기준’은 ‘이유’에 해당하고 ‘가치 적용’은 ‘근거’에 해당한다. 본고의 연구 참여자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로 학습하는 마지막 6학년 학생들로, ‘이유’의 개념과 중요성을 학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치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식도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¹⁷⁾

둘째, 가치 기준 설정의 인지적 어려움 때문이다. 가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추상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척도를 스스로 만들어야

16)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6국 03-02] 적절한 근거를 사용하고 인용의 출처를 밝히며 주장하는 글을 쓴다.'의 해설에서는 '주장과 이유 및 근거의 개념과 관계', '이유와 근거를 활용하여 주장하는 글쓰기' 등을 학습한다고 진술한다.

17) 이러한 해석의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향후에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학습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하므로 고차적인 사고가 요구된다. 따라서 비교적 인지적 부담이 큰 가치 기준보다는 구체적이면서도 자신의 경험에서 도출할 수 있는 쟁점인 가치 적용을 부각하여 가치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논제를 동어 반복하여 가치 기준을 세우는 과정을 건너뛰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비슷한 가치 기준들의 중복 제시

일부 학습자들은 중복되는 가치 기준을 다른 논거인 것처럼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논제 I에서는 2건(10%), 논제 II에서는 4건(20%) 발견되었다. 먼저, 논제 I에 찬성하는 입장의 글을 살펴보자.

[I-1]

첫째, 사람들은 행복을 느낄 때가 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여행하는 것을 행복해하고 어떤 사람은 혼자 취미 생활을 할 때 행복해하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한 사람도 있다. 돈은 성취감과 취미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중략) 셋째,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 돈이 있으면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해 볼 수 있다. 내가 오마카세를 먹고 싶으면 돈을 내고 먹고 내가 놀이 공원에 가고 싶으면 돈을 내서 갈 수 있고 내가 친구들을 사주고 싶으면 돈을 내고 사주면 된다. 이처럼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행복하다.

첫 번째 논거에서는 사람마다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행복하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관련된 가치 기준은 ‘하고 싶은 것을 하는가’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런데, ‘셋째’라는 문장 표지로 시작하는 단락에서 비슷한 내용의 논거가 반복 등장한다. 첫 번째 논거에서는 사람마다 하고 싶은 것이 다르다는 정보가 더 있을 뿐, 첫째와 셋째 가치 기준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다. 비슷하게 논제 II의 학습자 [II-12]는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며 교류하며 친해질 수 있다’는 가치 기준을 중복 제시하고 있다.

[II-12]

나는 “온라인 게임은 유익하다”에 “찬성”이다.

왜냐하면 첫째, 온라인 게임을 하며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과 소통하며 교류할 수 있다.

둘째, 온라인 게임에서는 여러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다. 물론, 정말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얼굴, 성별, 나이조차 정확하지 못한 곳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위험하다. 하지만 그만큼 요즘 온라인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기능이 강화되었다.

이와 같이 동일한 가치 기준을 반복 서술하는 양상은 기존의 이유 나열식 글쓰기 교육 방식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결과일 수 있다. 해당 방식에서는 논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논거를 3개 정도 제시하도록 하는데, 여러 선행 연구(박재현, 2014: 97; 이민형, 2015: 131)에서 비판하였듯 내용보다는 형식 중심의 쓰기 방식을 강조하게 된다. 이는 논거의 깊이보다는 개수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양산할 수 있고,¹⁸⁾ ‘첫째’, ‘둘째’와 같은 단락 구분 문장 표지만 붙이면 각각 다른 논거가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수 있다. 가치 논제에서는 가치 기준을 여러 개 세우기보다는 하나의 기준을 깊게 논증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동일한 가치 기준을 내용만 조금 달리하여 여러 개의 독립된 논거처럼 제시하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양상은 논제 I보다 논제 II에서 더 큰 빈도를 보였지만 그 차이가 근소하고, 앞선 양상들과 달리 논제의 성격에서 이유를 찾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향후 더 큰 표본을 통해 논제의 성격에 따른 빈도를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3) 가치 기준 정당화 미흡

정책 논제에서의 필수 쟁점은 현 상태에 대한 피해성, 내재성, 해결성

18) 앞서 가치 적용을 여러 개 나열하여 가치 기준을 대체하는 양상 또한 이러한 인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등으로 비교적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통해 입증하는 방식으로 논증이 이루어진다. 반면 가치 논제에서의 필수 쟁점, 특히 가치 기준은 논증 주체의 내부에서 주관적으로 설정된다. 따라서 설정한 가치 전제나 가치 기준이 왜 평가 용어와 연결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특히, 보편적인 공통 감각과 부합하지 않는 기준을 세우게 된다면 이러한 설명 즉 정당화 과정이 더욱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학습자들의 글쓰기에서는 자신의 가치 기준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매우 희소하였다. 이는 가치 기준 그 자체로 보편적인 가치 기반에 부합하므로 정당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런데, 설정한 가치 기준이 왜 평가 용어와 연결되는지 곧바로 납득되기 힘들거나 좀 더 분명한 정당화가 필요해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논제 II에 비해 논제 I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빈도로 발견되었다.¹⁹⁾ <표 2>는 논제 I과 II에서 학습자들이 제시한 가치 기준들이다.

<표 2> 논제별 제시된 가치 기준

논제 I	논제 II
<p><행복에 대한 가치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공부를 더 하게 되는가?</u> • <u>다른 사람에게 기부하는가?</u> • <u>주변 사람에게 신경을 쓸 수 있는가?</u> • <u>의식주 걱정이 없는가?</u> • 건강한가? •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가? • 하고 싶은 것을 모두 할 수 있는가? • 편리한가? • 친구가 많은가? <p><불행에 대한 가치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 많은 욕심이 일어나는가? • 번거롭고 귀찮은가? 	<p><유익함에 대한 가치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가?</u> • 취미가 되는가? • 도파민이 나오는가? • 스트레스가 해소되는가? • 학습에 도움이 되는가? • 다양한 직업군에 흥미를 기질 수 있는가? <p><유익하지 않음에 대한 가치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부모님이 금지하는가?</u> • 건강에 해로운가? • 중독성이 있는가? • 나쁜 말을 배우게 되는가? • 좋지 않은 감정을 느끼게 하는가?

19) 여기서는 빈도를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내지 않았다. 가치 기준에 대한 수용 여부는 주관성에 기댄다는 점에서 정당화 필요성은 독자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굵은 글씨로 강조된 가치 기준들은 연구자와 검토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정당화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지만, 여전히 주관적 해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논제 I의 경우, 학습자들이 제시한 모든 가치 기준들이 정당화가 필요한 기준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당화 필요 없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이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굵은 글씨로 표시한 ‘공부를 더 하게 되는가’를 제시한 학습자는 ‘돈이 많으면 그 돈을 지키기 위해 더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고 서술하였는데, 공부를 의무적으로라도 더 많이 하는 것이 왜 행복과 연결되는지를 뒷받침하지 않았다. ‘친구가 많은가’와 ‘의식주 걱정이 없는가’ 또한 일부 사람들에게는 행복을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없다고 여겨질 수도 있으므로,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당화가 필요하다. ‘다른 사람에게 기부하는가’나 ‘주변 사람에게 신경을 쓸 수 있는가’의 경우 보람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행복과 관련되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결 논리에 대한 언어적 표현 없이 가치 기준만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한편, 논제 II에서는 논제 I에 비해서는 정당화가 필요한 가치 기준들이 현저히 적어 보이지만, 일부 기준들은 정당화가 없으면 그 자체로 논리적 오류를 담지하게 되는 경우들이었다. ‘부모님이 금지하는가’는 유익하지 않음을 판단하는 잣대가 필자 내부에서 생성된 가치 기준이 아니라 외부에서 가져온 것이라는 점에서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가 되기 쉽다. 따라서 다른 가치 기준들보다 더 엄밀한 정당화를 하지 않으면 타당한 가치 기준으로 기능하기 어렵다. 부모님의 금지가 합리적인 판단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 금지의 이유가 ‘유익하지 않음’과 연결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러한 과정을 생략한 채 가치 기준으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한편, ‘다른 사람과 교류할 수 있는가’ 또한 일부 독자에게는 유익함과 관련성이 납득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뒷받침하는 연결 고리를 부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논제 I에서 논제 II에 비해 정당화가 필요함에도 이루어지지 않은 가치 기준들이 많았던 이유는 평가 용어의 성격에서 찾을 수 있다. ‘행복’은 정서

어휘라는 점에서 사람마다의 기준이 다양하므로 공통 기반이 그만큼 적을 수 있다. 즉, 정서 어휘의 특성상 그것에 대한 판단 기준이 개인마다 다양할 수 있다. 반면 '유익함'은 정서적 효용, 물질적 효용 등 상정할 수 있는 영역의 범위가 넓다는 점에서 포용할 수 있는 가치 기준도 그만큼 넓어진다. 따라서, 필자가 세우는 가치 기준들이 정당화 과정 없이도 독자에게 수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를 통해, 가치 논제에서는 평가 용어의 성격에 따라 독자에게 수용되는 가치 기준들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가치 논제 글쓰기를 교육할 때는 사람마다 관점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 기준들은 될 수 있으면 엄밀하게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중요성은 논제가 품고 있는 평가 용어가 개인의 가치관에 기대는 주관성이 강할수록, 의미역이 좁을수록 더욱 강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가치 적용 양상

1) 가치 적용 부재

평가 용어를 판단하는 가치 기준이 타당하게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평가 대상이 그 가치 기준에 부합하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성공적인 논증이 되기 어렵다. 가치 적용이 생략되어 부재한 경우는 논제 I에서는 1건(5%), 논제 II에서는 6건(30%)으로 빈도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다음은 논제 II 학습자의 글쓰기 자료이다.

[III-13]

첫째, 게임은 사람에게 행복과 재미를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끼리 밖에서 게임을 하면 아이들이(→ 아이들 간의 사이가) 엄청 좋아지기도 한다. 게다가 게임을 많이 하면 독이 되지만 적당히 하면 그래도 경험, 재미 등을 주기 때문이다.

위 예시에서는 온라인 게임이 재미를 준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독자들에게는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런데 온라인 게임을 즐기지 않는 독자들을 위해서는 온라인 게임이 어떤 점에서 재미있는지 설명해야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예시에서는 온라인 게임에 대한 가치 기준인 ‘재미’만 반복적으로 강조할 뿐, 구체적인 가치 적용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학습자들 중 자신들이 제시한 가치 기준에 대한 가치 적용을 따로 제시하지 않는 경우들이 발견되었다.

두 논제에서의 빈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논제의 성격에서 그 원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논제 II의 평가 대상인 ‘온라인 게임’은 학습자의 생활 맥락과 더 밀접하게 연관된 익숙한 대상이다. 학습자는 일상생활에서 평가 대상(온라인 게임)을 가까이 접하며 형성한 프레임(재미, 중독성, 건강 문제 등)이 있을 것이고, 오랜 시간 쌓아온 프레임은 학습자에게 그 자체로 자명하고 당연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따라서 그 프레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타인도 동일한 프레임을 공유할 것이라고 간주하여 평가 대상이 가치 기준에 왜 연결되는지 설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을 수 있다. 즉, 친숙한 평가 대상일수록 독자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의식이 낮아지고, 가치 적용의 생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반면, 논제 I의 평가 대상인 ‘돈’의 경우, 학생들은 본격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개념에 대한 경험이 비교적 한정적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돈과 자신이 세운 가치 기준의 관계를 글쓰기 과정에서 재인하게 되고, 이러한 의식적 과정을 거쳤기에 명시적으로 언어화될 여지가 더 크다. 논제 I에서 가치 적용이 생략된 경우가 현저히 적은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2) 가치 적용의 보편성 부족

가치 적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정 개인의 경험 혹은 특

수한 상황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인 예시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학습자들의 글쓰기에서 가치 적용의 보편성이 부족한 사례들이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경우는 논제 I과 II에서 모두 6건(30%)으로 동일한 빈도로 나타났다. 각 논제별 대표 예시들은 아래와 같다.

[I-8]

넷째, 친구가 많아질 수 있다. 친구가 없으면 바로 돈으로 친구를 살 수도 있습니다.

[II-19]

넷째, 게임을 하면서 현실을 하면 해본 사람만 아는 묘한 쾌감이 있다. 이걸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

[I-8] 학습자는 돈이 많으면 친구를 살 수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보편적인 관점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가치 적용이다. 이어서 [II-19] 학습자는 ‘스트레스가 풀리는가’는 가치 기준에 대한 가치 적용 부분에서 현실(온라인 게임에서 아이템 구매에 돈을 쓰는 행위)이라는 특수한 경우가 주는 쾌감만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행위에 취미가 없는 사람을 설득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온라인 게임 자체가 주는 스트레스 해소 효과와 적절하게 연결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양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자신이 가진 개인적 경험과 인식이 보편적인 시각에서 받아들여질 만한 것인지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평가 대상과 가치 기준의 관계를 입증할 때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례들을 제시해야 적절한 논증이 되는데, 수용 가능성에 대한 별다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이다.

V. 교육적 시사점 및 결론

본고에서는 초등학생의 가치 논제 글쓰기에서 필수 쟁점들이 구현되는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 장에서는 쟁점별 양상을 요약하고 각 양상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논제의 해석 측면에서는 첫째, 핵심 개념(평가 대상)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토론에서 평가 대상을 정의하지 않으면 같은 논제임에도 서로 다른 평가 대상을 상정하여 논쟁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발생하듯, 글쓰기에서도 필자가 평가 대상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드러내지 않으면 논증의 대상이 독자에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이는 초등학교에서부터 논증적 글쓰기에서 핵심 개념을 정의하는 것의 중요성을 교육 내용으로 포함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평가 대상과 평가 용어를 변경하여 논제가 달라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는 연상적 사고 때문으로 추론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고는 내용 생성을 추동하는 역할을 하므로 글쓰기에서 무조건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논제 해석에의 오류를 낳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상된 개념이 논제에 내포된 개념을 대체할 수 있는지, 논증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성찰할 수 있는 질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비계는 학습자들이 연상적 사고로 인해 논제의 초점을 바꾸지는 않되 연상한 개념을 논증을 뒷받침하는 보조적 개념으로 적절히 활용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평가 대상을 혹은 평가 대상과 평가 용어를 모두 부정형으로 치환하여 논제의 논리적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논리 관계와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초등학생 수준에서는 다소 어려운 고차적 사고를 요구하므로 논리 구조에 대한 지식을 직접 가르치기보다는 구체적인 비교를 통해 지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예컨대, 원래의 논제와 평가 대상이 부정형으로 치환된 논제를 나란히 제시하고, 그 두 논제가 의미하는 바가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보는 활동을 논제 해석

단계에서 제시한다면 학습자가 명제의 논리 관계에 대한 추상적 지식 없이도 구체적 수준에서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가치 기준 설정 측면에서는 첫째, 가치 기준을 가치 적용으로 대체하거나, 순환 논증의 오류를 통해 가치 기준을 생략하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유와 근거를 명확히 분별하도록 지원하여야 하는데, 이는 가치 기준과 가치 적용을 구분하는 것과 이어지기 때문이다. 전술하였듯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중요한 지점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음을 시사한다. 또한, 가치 기준을 세우기 위한 추상적 사고 발전의 어려움으로 인해 그 과정을 생략해 버렸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수준인 ‘가치 적용’ 단계를 거쳐 가치 기준을 생성하도록 안내함으로써 인지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가치 기준을 단번에 세우도록 요구하기보다는, 여러 가치 적용 사례들을 제시하고 ‘이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묻는 방식으로 가치 기준을 도출하도록 도울 수 있다.

둘째, 비슷한 기준들을 다른 논거인 양 중복 제시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그간의 글쓰기 교육에서 논거를 여러 개 나열하는 것을 강조하는 등 내용보다는 형식적 측면을 강조하였던 데서 비롯된 문제로 보인다. 정책 논제에서는 행위의 결과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 개의 논거를 제시하여야 하지만, 가치 논제에서는 여러 개의 가치 기준을 나열하여 산발적인 논의를 하기보다는 하나의 가치 기준을 제대로 정당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가치 논제 글쓰기를 교육할 때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하나의 가치 기준만을 제시하도록 제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하나의 가치 기준에 초점화된 설명과 예시를 깊게 사고하고 제시하는 것을 경험해 보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가치 기준을 정당화하지 않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에게 ‘다른 사람들도 이 기준에 동의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행복’과 같은 감정 어휘의 평가 용어를 다룰 때는 개

별 글쓰기 활동 전에 평가 용어에 대한 가치 기준을 서로 공유하여 주관의 차이를 경험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된다.

가치 적용 측면에서는 두 가지 양상이 발견되었다. 첫째, 가치 적용을 생략하는 경우이다. 이는 학습자가 평가 대상과 가치 기준에 대한 연결 관계에 대한 소통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 둘째, 보편적인 가치 적용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는 첫 번째 양상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관점에 갇혀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의 논증을 비판적으로 돌아보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 두 양상은 공통적으로, 학습자들이 가치 기준을 세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평가 대상과 연결하여 타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지도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동일한 논제에 대해 여러 가지 가치 기준과 가치 적용 사례를 살펴볼게 함으로써 판단의 관점이 다양할 수 있음을 경험하게 할 필요가 있다. 즉, 나에게만 당연하여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들 필요가 없어 보이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그 적용 사례 또한 다른 사람이 성공할 만한 것인지 성찰하도록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논증 교육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정책 논제나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데 비해,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가치 논제 글쓰기 양상에 초점을 두어 선행 논의를 확장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가치 논제에 따른 글쓰기 양상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동일한 학습자에게 서로 다른 두 성격의 가치 논제를 제시하여 양상의 차이점을 질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도 추가적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논제의 수, 연구 참여자의 수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추후에는 더욱 다양한 성격의 가치 논제와 학습자 집단을 활용하여 연구 결과를 심화해 볼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결과가 후속적인 논의의 발판이 되는 한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가치 논제 논증 교육 내용과 방법을 설계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본 논문은 2026.01.29. 투고되었으며, 2026.02.08. 심사가 시작되어 2026.03.07.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교육부(2015), 『국어과 교육과정(제2015-80호)』, 세종: 교육부.
- 교육부(2022), 『국어과 교육과정(제2022-33호)』, 세종: 교육부.
- 김혜연(2014), 「국어교육 연구에서 질적 자료 분석 방법에 관한 고찰」, 『국어교육』 147, 377-405.
- 민병곤(2000), 「신문 사설의 논증 구조 분석」, 『국어국문학』 127, 133-154.
- 민병곤(2002), 「토론 담화에서 속담의 진행(move) 기능에 대한 고찰」, 『신청어문』 30, 257-284.
- 민병곤(2004), 「논증적 텍스트의 생산과정에서 논증 도식의 운용 양상에 대한 분석 및 교육적 시사」, 『국어교육학연구』 18, 183-222.
- 박재현(2014), 「정책 토론의 입론 구성 교육 내용 연구」, 『우리말글』 60, 93-121.
- 서영진(2012), 「TV 토론 담화 분석을 통한 논증 도식 유형화」, 『국어교육학연구』 43, 285-321.
- 서영진(2023 ㄱ), 「학습자의 논증 도식 활용에 대한 질적 메타 분석」, 『우리말교육현장연구』 17(1), 7-49.
- 서영진(2023 ㄴ), 「초·중·고 국어 교과서 토론 논제의 적절성 고찰-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토론 논제의 변화 양상과 학교급별 토론 논제의 계열성을 중심으로」, 『청담어문교육』 94, 79-114.
- 이민형(2015), 「가치 논제 토론의 입론 형식 유형 연구-필수 쟁점의 논리 구조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50(3), 122-160.
- 이민형(2016), 「가치 논제 토론 수업을 위한 설계 기반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선영(2011), 「토론 교육 내용 체계 연구-초·중·고 토론대회 담화분석을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성민(2015), 「고등학생의 자료 통합적 글쓰기에서 분량에 따른 능숙한 필자와 미숙한 필자의 논증 양상 비교」, 『국어교육학연구』 50(3), 194-233.
- 장지혜(2019), 「탐구적 쓰기로서 가치 논제 글쓰기의 특성 고찰-고등학생 필자의 논증 양상 분석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167, 89-119.
- 장지혜(2020), 「가치 해석 글쓰기의 정당화 기제 생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지서영(2024), 「고등학생의 논증적 글에 나타난 무브 양상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채윤미(2015), 「논증 텍스트의 무브 분석 연구-한국어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국어교육』 151, 175-199.
- 최성호·정정훈·정상원(2016), 「질적 내용 분석의 개념과 절차」, 『질적탐구』 2(1), 127-155.
- Bereiter, C. (1980), Development in writing, In L. W. Gregg & E. R. Steinberg(Eds.), *Cognitive processes in writing*,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Freeley, A. J. & Steinberg, D. L. (2014), 『논증과 토론: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비판적 사고』, 민병곤·박재현·이선영·이민형·권은선(역),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18.

- Inch, E. S., Warnick, B. & Endres, D. (2006), *Critical thinking and communication: The use of reason in argument*, (5th ed.), Boston, MA: Pearson Education.
- Matlon, R. J. (1978), "Debating propositions of value", *The Journal of the American Forensic Association* 14(4), 194-204.
- Swales, J. M. (2004), *Research Genres: Explorations and Applic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rapp, R. & Driscoll, W. J. (2005), *Discovering the world through debate: A practical guide to educational debate for debaters, coaches and judges*, (3rd ed.), New York, NY: International Debate Education Association.
- Van Eemeren, F. H & Grootendorst, R. (1992), *Argumentation, Communication, and Fallacies: A Pragma-dialectical Perspective*,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Williams, J. M. & Colomb, G. G. (2007), *The Craft of Argument*, (3rd ed.), New York, NY: Pearson Longman.

초등학생의 가치 논제 글쓰기 양상 분석 — 필수 쟁점을 중심으로

김윤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가치 논제 논증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매우 희소하다. 이에 본고는 필수 쟁점을 분석 틀로 설정하여 논제 해석, 가치 기준 설정, 가치 적용이 실제 초등 학습자들의 글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살펴 보았다. 분석 결과, 논제 해석 단계에서는 평가 대상에 대한 정의 부재, 평가 대상과 평가 용어의 변경으로 인한 논제 전환, 부정형 치환으로 인한 논제의 논리 구조 변경이 나타났다. 가치 기준 설정 단계에서는 순환 논증이나 가치 적용 대체로 인한 가치 기준의 생략, 비슷한 가치 기준들의 중복 제시, 가치 기준 정당화 미흡 양상이 발견되었다. 가치 적용 단계에서는 가치 적용 생략, 가치 적용의 보편성 부족의 양상이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초등학생을 위한 가치 논제 논증 교육의 체계적인 내용과 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핵심어 국어교육, 가치 논제, 논증적 글쓰기, 필수 쟁점, 초등학생

ABSTRACT

An Analysis of Elementary Students' Writing on Value Issues

— Focusing on Essential Components

Kim Yunji

This study examines elementary students' value-issue writing, with a focus on three essential components: theme interpretation, value criteria setting, and value application. During the issue interpretation stage, failure to define the object of evaluation, shifting the issue owing to changes in the object or evaluative terms, and distortion of the logical structure of the issue were observed. During the value criteria-setting stage, omission of value criteria resulting from circular reasoning or substitution with value application, repeating similar value criteria, and omission of the justification of value criteria were observed. During the value-application stage, omissions of value applications and a lack of shared or commonly accepted reasoning were identified. These results serve as the foundation for developing systematic content and instructional approaches for value-issue argumentation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KEY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value issues, argumentative writing, essential components, elementary school students